

## 언어 습득에서의 규칙과 연습

박 승 윤  
기초학과

### <요 약>

언어의 본질과 외국어 습득연구에 관하여 그것이 지니는 의의 때문에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과정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러나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에 관하여는 구조주의 경험론과 인지론적인 변형문법 사이에 의견의 일치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심리학에 기반을 둔 습관이론은 인간의 언어습득이 근본적으로 모방과 강화에 의한 기계적인 것이며 언어습득에 있어서는 지식분석 보다 무의식적 연습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변형문법과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규칙이론은 언어의 규칙체계를 내재화 함으로서 언어가 습득되고 언어 습득에서는 무의식적 연습보다 지적분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언어습득 이론의 배경을 철학, 심리학, 언어학의 맥락속에서 찾아보고 이 두 이론을 결합시켜 하나의 포괄적인 언어 습득이론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동시에 어린이가 모국어 습득시 사용하는 전략과 현재 외국어 습득시 사용되는 전략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보고 이 불일치를 오류, 문법발전, 장애, 배열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 Rule and Practice in Language Learning

Park Seung-Yoon  
Dept of Basic Studies

### <Abstract>

For its relevance to the nature of language and its insights into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process of a child's first language acquisition has been a target of deep investigation in linguistics, pure and applied. On the theme of how a language is acquired, however, no agreement has yet been reached between the two schools of thought; namely, structuralism with habit formation theory and transformational cognitivists of rule-governed creativity.

Based on structural linguistics and behaviorism in psychology, the habit formation theory interprets human language learning a mechanical process of habit formation through imitation and reinforcement. Placing much emphasis on unconscious practice, it denie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analysis in human language acquisition. On the other hand, the transformational grammar and gestaltpsychology-oriented code-cognition theory stresses the creative, rule-governed aspects of language learning through internalizing the code of the grammatical rules of a language.

Tracing the origin of these two controversial ideas of habit-formation and code-cognition back in philosophy, psychology and linguistics, this paper purport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incorporating these two themes into a single coherent theoretical framework of language acquisition. Additio-

nally, some incongruities are found between the actual phenomena observed from a child's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and the views held by the current theorie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These incongruities have been studied under the topics of error, grammar development, interference and grading.

## I. 서 론

어린이의 언어습득에 관한 연구는 언어심리학의 한 연구분야로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언어의 본질(nature)에 대한 통찰<sup>(1)</sup>과 외국어 습득에 관한 강력한 시사로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18세기 말 Herder의 언어기원에 관한 연구에서 19세기 von Humbolt의 언어와 인간정신에 관한 연구<sup>(2)</sup> 이후 언어 습득은 학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변형문법이론(transformational grammar)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이렇다 할 정설이 없으나 언어의 본질에 관한 언어학 이론의 양분과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 학설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구조주의 경험론(empiricism)이며 다른 하나는 변형문법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합리론(rationalism)이다. 이들은 각기 17세기 아래로 서구 철학의 양조류를 이루고 있는 경험론(empiricism)과 합리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험론과 합리론이 철학, 심리학, 언어학에서 가지는 연관관계를 살피본 후 경험론에서 주장하는 연습(practice)과 합리론이 강조하는 규칙(rule)이 언어습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모국어 습득에서 언어지는 이론을 외국어 습득과정에 적용시키러할 때 발생하는 몇가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점을 기술하려고 한다.

## II. 본 론

### 1. 철학, 심리학, 언어학

인간의 인식능력이 선천적 혹은 선형적인 것이냐 아니던 후천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구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가 되어왔다. 인간은 이성적인 추리에 의하여 진리에 도달할 뿐 아니라 경험에 선행하는 진리(a priori truth)가 존재한다고 주장해 온 17세기 Descartes, Leibniz, Spinoza와 같은 철학자들의 이성주의적 합리론(rationalism)은 인간 활동에 있어서 사고(thinking) 및 내성(introspection)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고<sup>(3)</sup> 경험(experience)보다는 이성(reason)을 앞세워 서구 계몽시대의 선구가 되었다. 이들은 일찌기 이성과 사고와 언어 사이의 불가분성을 인식하여 언어가 일종의 정신활동(mental process)임을 강조하였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영국의 Hobbes와 Locke와 같은 철학자들은 이러한 합리론을 반박하고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되며 연상(association)에 의해 된차근적인 방편으로 하나하나 축적 된다는 경험론(empiricism)을 주장하였다.<sup>(4)</sup> 경험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지식은 경험적인 기원에 의존할 뿐 선형적 개념(innate idea)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이리하여 종래 인간의 사고체계 속에서 중요 역할을 하던 내성은 경험주의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감각기관(sensory motor system)으로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sup>(5)</sup>

(1) Chomsky의 변형문법에서는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에 관한 모델구성이 그들 언어학의 숙제기 되고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선천적지식(innate knowledge)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인간 특유의 언어능력을 실념하여 주기 때문이다. 참조; Noam Ch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1965), pp.47~59

(2) Peter Salus, *On Language* (Holt, Rinehart & Winston, 1970) 특히 J.G. Herder, *Essay on the Origin of Language* (pp.148-166), Wilhelm von Humbolt, *Introduction to Concerning the Variety of Human Language and its Influence o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Mankind* (pp.178-198) 참조

(3) 합리주의의 mind, reason, thought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Noam Chomsky, *Language and Mind* (Harcourt, Brace & World, 1968)의 past부분 (pp.1-20)과 Susanne Langer, *Philosophy in a New Key* (The New American Library, 1951), pp.15-33

(4) Tabula rasa 이론이 이러한 주장이며 Descartes의 'Cogito ergo sum'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Noam 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Harper & Row, 1966), p.62. "Our mind is a clean sheet, as though we obtained our capacity for dealing with object themselves."

(5) Susanne Langer, *op.cit.*, pp.15-33

유럽 철학을 대표하던 합리주의와 영, 미에서 기 반을 얻은 경험주의 철학은 심리학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심리학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과 행동심리학(behaviorism)의 양분이 발견된다. 행동심리학은 모든 심리학적 발견을 감각기관(sense organization)에서 찾으려 하였으며 눈으로 식별 관찰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라든가 내성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속에서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행동(overt behavior)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Watson 으로부터 Pavlov 의 개를 대상으로한 자극 반응(stimulus-response) 실험을 거쳐 Skinner 의 operant conditioning theory 로 이론을 확립시킨 행동 심리학은 의식(consciousness)이나 영상(image)과 같은 개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리학의 영역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Watson regarded mentalistic concepts such as consciousness, image and the like as having no place in a scientific, objective science: Rather, investigation is to center on the observation of overt stimuli and responses."<sup>(6)</sup> 내성(introspection)에로의 복귀는 외면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에 불만을 품고 있던 형태심리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형태심리학은 심리현상을 다룰 때 우리의 내관에 포착되는 의식체험을 중요시하고 원자론적인 개체 행동의 외면적 관찰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이고 유목적적(purposive)인 유기체의 행동을 그 전체로서 파악하려하였다. 이 전체론적인 파악(holism)은 인간의 두뇌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작용(cognition)과 지적활동(mental process)을 중요시하도록 만들었으며<sup>(7)</sup>, 합리주의 철학의 직관(intuition), 통찰(insight), 추상성(abstractness)과 같은 개념은 인지심리학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철학과 심리학의 이러한 조류는 언어학에도 관계가 있어 내립되는 두개의 학과를 형성하였다. 20세기 초기 Bloomfield 와 Saussure 를 시조로 하여 일

어난 구조주의 언어학(structural linguistics)은 언어가 하나의 행동(verbal behavior)이며 다른 인간 행동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자극-반응(stimulus-response) 관계에서 강화(reinforcement)를 통해 습득된다고 주장하였다. 구조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 습득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과정(mechanical process)임으로 사고를 통한 이해 보다는 습관화의 수준에 이르는 연습(practice)이 중요하였다.<sup>(8)</sup> 1957년 Chomsky 의 *Syntactic Structure* 는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을 휩쓸던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이었다. 그후 우후죽순 처럼 쏟아져 나온 소위 변형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의 언어이론 내지 언어습득이론은 합리론(rationalism)과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9)</sup> 이들은 인간의 언어 습득이 근본적으로 연습을 통한 습관화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과정이며 인간은 언어 습득을 가능케 하는 인간특유의 어떤 장치인 머리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선천적 언어능력(innate cognitive abilities)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언어습득이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언어가 하나의 규칙체계이며 내성을 통한 규칙 체계의 내재화(internalization)가 언어습득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 2. 구조주의 경험론과 연습(practice)

언어도 전체적인 인간행동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구조주의 경험론자들은 인간의 언어습득이 그들의 자극과 반응의 함수관계에 입각한 학습이론의 태두리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10)</sup> Skinner 에 의하면 최초로 operant 를 지니고 있는 유기체는 어떤 자극(stimulus)이 주어지면 이에 능동적인 어떤 반응(response)을 보이게 되는데 이 반응에 보상(reward)을 주어 적절한 방향으로 강화(reinforcement)를 함으로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하나의 행동으로 조건화(conditioning) 된다는 것이다.<sup>(11)</sup>

(6) F. Bosco & R. Di Pietro, 'Instructional Strategies: Their Psychological and Linguistic Basis,' *IRAL* VIII/1 pp.5-10.

(7) *ibid.* p.8 "Though gestaltpsychology has succeeded in overcoming molecularity and in assuming a molar orientation, it has retained a basically introspectionistic focus."

(8) L. Bloomfield,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1933) p.34 "Language is a matter of training and habit."

(9) K. Chastain, The Audio-lingual Habit Theory vs. The Cognitive Code-learning Theory, *IRAL* VIII/2, p.100. F. Bosco & R. Di Pietro, *op. cit.*, pp.9-10.

(10) B. F. Skinner, *Verbal Behavior* (Appleton-Century-Crofts, 1957), p.10 "We have no reason to assume that verbal behavior differs in any fundamental respect from non-verbal behavior, or any new principles must be invoked to account for it."

(11) Pavlov 의 고전 조건화 이론(classical conditioning theory)도 operant 란 개념만 빼면 Skinner 의 도구적 조건화 이론(instrumental conditioning theory)과 동일하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습득도 어린 주위의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어린이의 가발각 고원을 적당히 강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이가 배가 고틀 때 '맘마'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밥을 주면서 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칭찬해 준다. 그리면 어린이는 배가 고틀때마다 '맘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적당히 반복하여 강화(칭찬이나 음식물을 줌)를 줌으로써 어린이는 이 어휘를 조건화하게 되어 습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극-반응에 의한 언어습득 실험은 읍슨, 어휘, 문장구조의 습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모국어 습득 모델은 외국어 습득에도 적용되어 최초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물과 이에 대응하는 외국어의 언어기호 사이에 연관(association)을 반복적으로 인습, 사용하여 이 연관을 조건화 시킴으로써 외국어를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자극-반응에 의한 외국어 구조의 학습이 하나 하나 쌓여져 전체 외국어 구조를 습관화함으로써 외국어 습득이 완결된다고 생각한다.<sup>(12)</sup>

구조주의 언어학이 내세우는 중요 가설중의 하나는 "언어는 하나의 습관체계이다 (Language is a set of habits.)"라는 것이다.<sup>(13)</sup> 모국어 습득은 외면적인 관찰이 가능한 행동의 자극과 반응 조건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가 모국어를 사용할 때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 의식하고 이 내용을 나타내는 언어형식의 사용은 완전히 습관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국어의 습득도 하나의 습관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유심론적 해석이나 정신활동을 부정하는 고로 외국어 습득이 완전히 이루어 지려면 사고를 통한 분석이 아니라 무의식적 언어형식의 연습(practice)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e command of a language is not matter

of knowledge; the speakers are quite unable to describe the habits which make up their language. The command of a language is a matter of practice"<sup>(14)</sup>

구조주의 언어학이 내세우는 다른 주요가설은 "언어는 서로 상이하다(Languages are different.)"는 것이다.<sup>(15)</sup> 모든 언어의 구조는 서로 상이함으로써 모국어의 발음, 어휘, 문장 구조가 이와는 다른 외국어의 언어구조를 습득하는데 장애(interference)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즉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사물과 이에 대응하는 외국어의 표현 사이에 모국어의 표현이 개입되어 장애현상을 주기 때문에 이 모국어의 장애를 극복하고 외국어의 언어구조를 습관화 시키려면 모국어 습득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모방, 반복, 인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Rivers는 언어습득, 특히 외국어 습득이야말로 습관화의 기계적과정(a mechanical process of habit formation)이라고 정의 하였으며<sup>(16)</sup> 구조주의 경험론에서는 overlearning의 수준에 이르는 연습이 언어습득의 근본원리 이었다. "Language learning is overlearning; anything else is of no use."<sup>(17)</sup> Hockett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모방과 반복의 행위이며 기본 언어구조의 유추(analogy)나 일반화(generalization)와 같은 방법이 무한한 언어표현을 가능케 하는 전적으로 이용된다고 한다.<sup>(18)</sup>

### 3. 합리론(rationalism)과 규칙(rule)

Chomsky가 *Cartesian Linguistics*(1966)과 *Language and Mind* (1968)등에서 언어습득에 관한 변형문법의 합리론을 밝힌 후에 구조주의 경험론의 자극과 반응 조건화에 의한 기계적 언어습득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인간에게는 모든 사고를 가능케 하는 정신(mind)이 있고 이 정신이 인간에게 언어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인 language

(12) 인지론자들은 구조주의 경험론이 동물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도 extrapolate 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언어 습득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한다는 molecular strategy에 회의를 품고 있다. 참조: F. Bosco & R. Di Pietro, *op. cit.*, p.7

(13) Karl Diller, *Generative Grammar, Structural Linguistics, and Language Learning* (Newbury House Publishers, 1971), pp.12-14

(14) L. Bloomfield, *Outline Guide to the Practical Study of Foreign Languages* (Baltimore, 1942), p.12.

참조: F. Bosco & R. Di Pietro, *op. cit.*, p.12.

(15) Karl Diller, *op. cit.*, pp.19-20.

(16) Wilga Rivers, *The Psychologist and the Foreign-Language Teacher* (The Univ. of Chicago, 1964), pp.10-20. K. Chastain, *op. cit.*, p.100

(17) L. Bloomfield, *Outline Guide* (1942), p.12.

(18) Charles F.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The McMillan Company, 1933) p.145. "Whenever a person speaks, he is either mimicking or analogizing," 그러나 McNeill은 어린이가 모국어 습득에서 보여주는 모방현상은 무의식적 모방이 아니라 자발적인 verbal play이며 이 verbal play가 모국어 습득의 주요전략이라고 주장한다. David McNeill,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Smith & Miller ed. *The Genesis of Language*(MIT Press, 1966), p.72

universals를 제공하여주며 이것이 발달 분화 되어 모국어와 외국어의 습득이 가능하다고 Descartes, Leibniz, Humbolt와 같은 합리주의자들은 주장한다. Chomsky는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와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구별한 후<sup>(19)</sup> 모든 언어 이론과 언어습득모델은 인간의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힘을 지직하고 구조주의 언어학의 언어수행에 기반을 둔 연구는 언어학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하였다.

합리론자들의 언어습득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가지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언어란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창조적인 것(rule-governed creativity)이다”였다. Chomsky는 모방, 반복, 유추등의 행동심리학이론과 분절(segmentation), 분류, 대치(substitution)와 같은 taxonomic linguistics에 기반을 둔 언어수행에 관한 구조주의 이론은 인간의 무한한 언어 생성능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언어습득은 한 언어의 추상화된 문법체계를 머리속에 내재화(internalize)시킴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His normal linguistic behavior cannot possibly be counted for in terms of stimuli control, conditioning, generalization and analogy, patterns and habit structures, but the preconditions for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perceptual foundation of abstract systems of internalized rules.”<sup>(20)</sup>

다른 하나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능력이 있다(unicely built to learn languages)”는 것이다. 언어의 보편성(universality), 인간특유의 언어능력 과 생리학적 이론<sup>(21)</sup>을 예로 들면서 인간의 언어 습득능력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sup>(22)</sup>

이와같은 이론을 가지고 변형문법에서는 모국어의 습득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린이는 자기가 선천적으로 지니고내어난 linguistic universals에 기반을 둔 언어습득장치(LAD)<sup>(23)</sup>을 가지고 자기에 주어질 언어환경(한국 어린이는 한국어)속에서 자기가 듣는 primary linguistic data로 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규칙체계의 형성은 모방, 반복이 아니라 언어구조 전체에 대한 파악<sup>(24)</sup>과 인간 특유의 언어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린이는 이 규칙체계를 이용하여 많은 문장 생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문법체계를 심인의 그것과 동일한 완전한 문법체계(adult grammar)로 발전시켜 나가게되며, 이와 동시에 이 문법체계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머리속에 내재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재화된 문법체계가 어린이의 무한한 언어 생성능력 즉 creative use of language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자기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내어난 언어습득 장치를 이용하여 주어지는 언어자료 속에서 외국어의 문법체계를 머리속에 내재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된다. 그리고 이 내재화된 추상적 문법체계로 외국어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습득은 그것이 지니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모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어 습득은 보통 모국어의 문법체계가 이미 내재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므로 모국어의 문법체계에서 오는 장애현상을 고려하여야 하며<sup>(25)</sup> 동기(motivation), primary linguistic data의 성질의 차이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모국어와 외국어의 언어체계가 머리속에서 coordinate bilingualism의 회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19) Noam Ch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pp.4-5.

(20) N.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p.73

동시에 N.Chomsky, *Aspects* (1965), p.57 참조

(21) Erich H. Lenneberg, 'The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in Mark Lester ed. *Readings in Applied Transformational Grammar*, pp.3-20 언어의 보편성과 인간특유의 언어 능력에 관하여는 N.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pp.3-16과 Karl Diller, *op. cit.*, p.27 참조

(22) 이권 점에서도 Chomsky는 Humbolt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Humbolt에 의하면 “language... not taught but rather develops from within... it will develop of its own accord by processes more like maturation than learning.” N.Chomsky, *Language and Mind*, p.67. N.Chomsky, *Aspects* (1965), p.51 참조

(23) LAD란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의미한다.

(24) David McNeill, *op. cit.*, pp.71-72. “Apparently patterns weigh more heavily with children than frequency of repetition does.”

(25) 장애(interference)는 물론 구조주의적인 개념이며 Newmark나 Reibel 같은 변형이론가는 장애현상의 존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참조: 4. (3) 모국어의 장애와 언어비교 분석

(26) coordinate bilingualism에 관하여 C. H. Osgood & T. A. Sebok, *Psycholinguistics* (Indiana Univ. Press, 1965), pp. 139-146 참조

#### 4. 문제점

지금까지 외국어 습득에 관한 모든 이론은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 외국어 습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있다.<sup>(27)</sup> 그러나 현재 외국어 습득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략중의 일부는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 사용하는 원리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언어 습득에 관한 구조주의 경험론과 합리론의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들을 오류, 문법발달, 장애, 교재배열의 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Correct response vs. Error : 구조주의 경험론자들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오류(error)의 발생은 가장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환경내지 teaching materials를 조절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극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언어습득을 자극과 반응의 조건화를 통한 습관형성의 과정이라고 보는 구조주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습관형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반응이 습관화 되면 이를 없애는데 더 큰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은 반응만 강화하고 옳지 않은 반응 즉 error는 될 수 있는 한 안 생기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언어습득이 unconscious, mechanical process of habit formation이라고 보는 그들의 언어관에서 비롯된다.<sup>(28)</sup>

변형 문법의 인지론자들은 옳지 않은 반응, 즉 error야말로 학생들이 외국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이며 error는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지 심리학에서 학습을 통찰(insight)에 의한 문제해결(problem-solving)의 과정으로 보는 것처럼 합리론자들도 언어 습득이란 언어체계에 대한 지적분석이므로 외국어 습득시 발

생하는 systemic error야 말로 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transitional competence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9)</sup> 실제로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과정을 살펴보면 어린이는 많은 error를 만들어내고 이를 수정해 가는 과정에서 언어를 습득한다. S.P. Corder는 error를 만드는 과정이 어린이의 문법습득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로써 보여주었다.

어머니 : Did Billy have his egg cup up for him at breakfast?

어린이 : Yes I showed him.

어머니 : You what?

어린이 : I showed him.

어머니 : You showed him?

어린이 : I seed him.

어머니 : Ah, you saw him.

어린이 : Yes, I saw him.<sup>(30)</sup>

여기서 어린이는 세가지 영어 문법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error를 통해 습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시제, saw와 see의 차이, see의 불규칙과 거형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전략이 외국어 습득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도 올바른 반응만을 무의식적으로 연습할 것이 아니라 error에 의한 구조 파악이 중요할 것이다.

(2) Adult grammar vs. Interim grammar : 변형 문법에서는 언어습득을 teacher의 관점에서 learner의 관점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언어가 누구에 의해 후천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태어난 innate ideas가 자발적으로 경속되어 짐으로서 언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One cannot really teach language but can only present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will develop simultaneously in the mind in its own way."<sup>(31)</sup>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가 모국

(27) 여기서는 이 가정을 일단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논리를 전개시키려 한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모국어의 습득 과정은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고 믿고 있다. 참조 S.P. Corder,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 V/4 pp.164-165 "Some at least of the strategies adopted by the learner of a second language ar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ose by which a first language is acquired."

(28) Wilga Rivers, *op. cit.*, p.102. "the student must not, as the infant does, experiment with new combinations and analogies, some accurate and some inaccurate. Instead he must be induced to produce the right responses by the teacher's careful arrangement of the circumstances of response. His mistakes are not cute but dangerous, in that they represent decremental, not incremental learning."

(29) S.P. Corder, *op. cit.*, pp.166-167

(30) S.P. Corder, *op. cit.*, p.167(이탤릭체는 필자가 넣은 것임)

(31) N. Chomsky, *Aspects* (1965), p.51.

어 습득시 만드는 오류가 틀린 것이지만 어린이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법에서 나온 올바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성인 문법(adult grammar)의 입장에서 error가 틀린 것이지만 어린이의 중간문법(interim grammar)에서 볼 때는 error야말로 올바른 것이다.<sup>(32)</sup> 단지이 중간문법은 차차 수정되어 완전한 성인 문법에 도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명사+s=복수”라는 문법을 익힌 어린이는 \*foots \*tooths와 같은 표현을 피할 수 없고 그의 중간 문법으로 보면 전혀 올바른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도 도중에 발생하는 error를 완전한 성인문법의 관점에서 나쁘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외국어의 성형이 증가함에 따라 완전화될 중간문법의 과정에서 보아야 옳다고 주장한다. 어린이가 성인문법이 아닌 자신의 독특한 중간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예로서 McNeill의 예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 Nobody don't like me.

어머니 : No, say nobody likes me.

어린이 : Nobody don't like me.

(동일한 대화가 8번 반복된다)

어머니 : No, now listen carefully; say nobody likes me.

어린이 : Oh! Nobody don't likes me.<sup>(33)</sup>

여기서 어린이는 8번이나 수정지시를 받았는데도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문법을 모방치 않고 자신의 문법체계에 의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Dusková도 외국어 습득시 발생하는 error의 상당부분이 외국어 내의 미숙한 문법규칙 체계 습득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4)</sup>

(3) 모국어의 장애와 언어비교 분석 : 모국어의 장애 현상과 이로 인한 언어비교 분석의 필요성은 Fries와 Lado가 강력히 주장해 온 이래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sup>(35)</sup> 이 필요성은 물론 언어는 서로 다르다는 구조주의 언어학이 피할 수 없는 논

리적 귀결이다. 장애(interference)란 학습이론에 나오는 transfer 현상의 일종으로 [구조주의자들은 모국어의 강한 습관에 영향을 받아 모국어의 구조와 다른 외국어의 구조는 매우 습득하기 어렵고 반면 모국어의 구조와 유사한 외국어의 구조는 습득하기 쉽다는 것이다.<sup>(36)</sup> 그러나 Newmark와 Reibel은 모국어로부터의 장애란 ignorance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완전한 외국어의 문법을 내재화하지 못한 중간단계에서 모국어 구조의 차용에 불과한 것이지 모국어의 장애는 아니라는 것이다. “To an observer who knows the target language, the learner will seem to be stubbornly substituting the native habits for target habits. But from the learner's point of view, all he is doing is the best he can: to fill in his gap of training he refers for help to what he already knows. The problem of interference viewed thus reduces to the problem of ignorance...”<sup>(37)</sup>

외국어의 모든 규칙체계를 내재한 후에도 모든 외국어의 구조가 performance level에서 똑 같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어떤 구조는 쉽게 습득되나 어떤 구조는 더 배우기 어려우니 규칙이 내재화된 이후에도 계속 error를 만든다. 이러한 어떤 구조가 주는 독특한 어려움은 그 구조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 즉 방해작용이 있다고 상정하지 않으면 설명될 도리가 없다. 따라서 Newmark의 의견은 많은 중요한 시사를 주기는 하지만 외국어 습득에 ignorance가 아닌 모국어의 장애(interference)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Newmark) predict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difficulty where there is a highly significant difference. These results point to an interference factor rather than just not knowing.”<sup>(38)</sup>

한편 모국어의 장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장애현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언어비교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구조주의 주장은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

(32) Vivian Cook. The Analogy Between First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IRAL* Vol. VII/3, p. 209

(33) David McNeill, *op. cit.*, p. 69.

(34) Libuse Dusková, 'On Sources of Error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IRAL* VIII/1, p. 25. 예를들어, Where are you going?이라는 의문문의 술어와 주어의 도치를 배운 학생은 \*'Do you know where are you going?'과 같은 미숙한 중간 문법에서 발생하는 error를 면할 길 없다.

(35) Charles, Fries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he Univ. of Michigan, 1945), p. 9

(36)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The Univ. of Michigan Press, 1957), p. 59

(37) L. Newmark & D. Reibel, 'Necessity and Sufficiency in Language Learning,' *IRAL* VI/2, pp. 159-160.

(38) T. Oller & S. Ziahosseiny,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and Spelling Errors,' *Language Learning* Vol. XX, Nos. 1&2, p. 188.

다. 왜냐하면 외국어 습득과정에서 관생되는 error 중에는 모국어의 장애를 받아 생기는 inter-lingual error 외에도 외국어 자체내의 복잡성에 의해 야기 되는 상당량의 intra-lingual error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비교 분석보다는 error-survey가 훨씬 더 실용적이라는 영국 학자들의 주장이 점차 미국에서도 먹히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언어비교분석이 어느 정도 외국어 습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는 인정되나 그 기여가 구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크지 않다고 평가 되고 있다.<sup>(39)</sup>

(4) Graded vs. Ungraded: 구조주의자들은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해 난이도에 따라 teaching materials를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Grammatical materials must be carefully graded so that the student advances slowly from material thoroughly learned and practised to more sophisticated material which involves more conscious choices"<sup>(40)</sup> 그러나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primary linguistic data는 많은 비문법적인 문장들과 전혀 배열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이 원리상 동일한 것이라면 외국어 습득에서 사용되는 교재 배열은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배열되지 않은 (ungraded) 언어자료를 가지고 자연적인 환경(natural context)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ewmark는 문법형식에 대한 조직적이고 배열된 연습이 아니라 meaningful and usable context에서의 연습이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주장한다.<sup>(41)</sup>

한편 일반적으로 모국어의 언어구조와 상이한 외국어의 구조가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므로 모국어의 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구조는 먼저 배우고 또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Politzer는 그의 실험에서 contrasting before parallel structure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만 실증

되었고 'parallel=easy, contrasting=difficult'란 가설도 영어의 어순에 관계된 부분에서만 실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42)</sup> 또 Oller도 그의 실험에서 정말로 습득하기 어려운 것은 외국어 구조가 그 자체내에 복잡한 sub-rules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contrasting structure가 아니라고 보고 하고 있다.<sup>(43)</sup> 따라서 grading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지는 앞으로 좀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에 속한다.

### III, 결 론

지금까지 언어습득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구조주의 경험론과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반되는 견해가 모국어와 외국어 습득을 설명하는데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가를 보아왔다. 현재 우리에게 걸음을 요구하는 문제는 모국어이든 외국어 이든 인간의 언어 습득을 모방, 반복, 유추 일반화 와 같은 기계적인 습관형성의 과정이라고 규정하는 경험론자와 규칙체제의 내재화를 통한 창조적인 언어사용과 같은 지적분석과정이라고 보는 합리론자의 견해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언어습득에는 많은 복잡한 요소가 그 변인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입장을 고집여 지지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이러한 요소들에 관한 보다 많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실험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한 이론으로 복잡한 인간의 언어 습득 문제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Rivers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두이론이 언어습득에 있어 각기 어느 측면에 대하여서만 설득력이 있으며, 언어 습득의 전체적인 이론 모델을 위하여서는 양 이론이 절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Rivers는 언어습득에 두가지 계층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lower manipulative level이며 다른 하나는 higher level of communication인데 전자는 경험론의 연습이 후자에는 인지론의 규칙이, 바꾸어 말하면 규칙에 의존한 지적분석이 효과적이

(39) Libuse Dusková, *op. cit.*, pp.35-36 언어비교 분석에 관하여는 다음 책을 참조 J.E. Alatus ed. *Report of the Nineteenth Annual Round Table Meeting on Linguistics and Language Studies*, (Georgetown Univ. Press, 1968)

(40) Wilga Rivers,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3), p.82

(41) L. Newmark, 'Grammatical Theory and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Mark Ieter, *op. cit.*, p.217

(42) R. Politzer, 'An Experiment in the Presentation of Parallel and Contrasting Structures,' *Language Learning*, Vol XVIII Nos. 1&2, pp.35-43

(43) J. W. Oller and S. Ziahoseiny, *op. cit.*, pp.185-186



라고 주장한다. "a place must be found for both habit form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a complex system... learning by induction, drill and analogy will be the commonest features of the early stages. Genuine freedom in language use will, however, develop only as the student gains control of the system as a whole"<sup>(44)</sup> 필자도 Rivers의 말대로 이 두 이분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하나의 언어습득 모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도 언어습득에는 연습을 통한 습관화의 일면과 규칙을 통한 문제해결의 일면이 양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up>(45)</sup> 따라서 초기의 기초적 어형론에 속하는 linguistic forms 사이의 관계는 연습을 통한 습관화 전략이 그리고 문장론의 수준에 속하는 새로운 환경에 알맞는 언어표현의 습득은 규칙을 통한 지적분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1. Chomsky, Noam.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1965.
2. \_\_\_\_\_ *Cartesian Linguistics*. Harper & Row, 1966.
3. \_\_\_\_\_ *Language and Mind*.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8.
4. Smith F. & Miller G. *The Genesis of Language*. Cambridge: The MIT Press, 1966.
5. Diller, Karl C. *Generative Grammar, Structural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Newbury House Publishers, 1971
6. Lester, Mark. *Readings in Applied Transformational Grammar*.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70
7. Rivers, Wilga. *The Psychologist and the Foreign-Language Teacher*.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5
8. \_\_\_\_\_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8
9. Langer, Susanne. *Philosophy in a New Key*. The New American Library, 1951
10. Corder, S. P.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 V/4, 1967
11. Cook, Vivian. 'The Analogy Between First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IRAL* VII/3 1969
12. Chastain, K. 'The Audio-lingual Habit Theory vs. the Cognitive Code-Learning Theory', *IRAL* VII/2, 1969
13. Bosco F. & Di Pietro R. 'Instructional Strategies: Their Psychological and Linguistic Bases', *IRAL* VIII/1, 1970

(44) Wilga Rivers,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p.72 p.80

(45) Karl Diller, *op.cit.*, p.38.